

룸살롱·카페도 근로감독

노동부 5월부터 유흥업소 18살미만 야간근무 처벌

노동부는 23일 지금까지 건설·제조업 위주로 실시해온 근로감독을 룸살롱·카페·요정 등 유흥접객업소에까지 확대, 여성과 18살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와 술자리 접객행위 등에 대한 감시·감독활동을 벌여 적발되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애초 7월부터 실시하려던 유흥업소 근로감독을 5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방노동관서에 4월말까

지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마치고 지시했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여성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기피, 서비스업으로 몰림으로써 생산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산업현장으로 인력유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흥접객업소 근로감독을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서 여성상담실 마련

여경 배치 성폭행사건등 상담

치안본부는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여경 전문상담관을 배치한 ‘여성상담실’을 열어 성폭행·인신매매 등 여성피해자들의 상담과 법률구조를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여성 상담자의 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전화상담도 받기로 했다. 각 지방의 상담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서울 (02)733-0118 △부산 (051)465-0118 △대구 (053)421-0118 △인천 (032)763-0118 △경기 (0331)48-0118 △강원 (0361)56-0118 △충북 (0431)56-0118 △충남 (042)253-0118 △전북 (0652)81-0118 △전남 (062)226-0118 △경북 (053)956-0118 △경남 (0551)61-0118 △제주 (064)47-0118